

산지 수산물 유통 거점화

도, 해수부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공모 선정… 60억 원 투입 군산 비응항서 건립
해삼·꽃새우 등 전처리·가공 공급서 높이 평가… 전북 유일 센터라는 점도 고려

전북도가 해양수산부의 2021년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FPC)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는 산지에서 수산물을 매입·위탁하고, 물량을 모아 전처리·가공 등을 거친 뒤 상품화하거나 대형소비처에 공급하는 거점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군산시 비응도 일원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센터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해삼·꽃새우 등을 산지 매입 및 가공 예정이다.

산지 수산물 처리물량의 규모화를 통한 가공으로 도내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추진 및 생산지의 적정한 수산물(원물) 가격을 보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에는 전북도를 포함한 3개 지자체가 참여,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전북도(군산시, 어업회사법인(주))



군산 비응항에서 건립될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조감도

(해진)가 최종 선정됐다.

도는 산지에서 매입한 해삼·꽃새우 등을 전처리·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거나, 학교 급식 로컬푸드 시스템을 통해 공급하고자 하는 운영 계획을 높게 평가받았으며 유일한 전북지역 센터라는 점도 고려됐다.

서제회 도 수산정책과장은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FPC) 건립으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해수욕객 맞이 ‘문제 없다’

전북도-시·군 합동

도내 해수욕장 방역 점검

오늘부터 순차 개방

방역관리자 지정 등

현장대응반 구성·운영

전북도내 해수욕장이 이번 주 일제히 개장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와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도내 8개 해수욕장은 7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하며 해수욕객을 맞이한다.

9일 군산 선유도, 고창 구시포 등 호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10일 부안 변산, 객포, 고사포, 모항, 위도 해수욕장이 개장된다.

고창군 내 해수욕장은 8월 15일까지, 군산시·부안군 지역 해수욕장은 8월 16일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전북도는 최근 지역사회와의 연이어려움 전파 등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해수욕장 안전 및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군별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해수욕장 안전 및 방역감시망 구축을 위해 선유도 해수욕장은 경계 면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도내 전 해수욕장에 안전 및 방역요원을 배치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검사소 24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심콜, 체온스캐너, QR코드 등으로 출입과 방문 이력, 발열검사를 관리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해수욕장 방역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호덕 도 해양행정과장은 “코로나19감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여름철 노인복지시설 민관 합동점검 실시

전북도가 2021년 하절기 노인복지시설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태풍·집중호우·혹서와 같은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 인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 합동점검을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전 점검은 시설 자체 점검과

지자체 점검방법을 통한 확인 점검, 보

건복지부 및 안전 전문기관(국토안전

관리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

시된다.

이번 민관합동점검은 견축년도가 20

년 이상이며, 50인 이상 거주하는 생

활시설인 김제노인전문요양원과 김제

노인복지센터, 익산아카페정인원 등 3

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교육·훈련, 책

임보험·소방·전기·가스안전관리, 태

풍·집중호우 등 하절기 풍수해에 대한

준비 상태, 건강관리 대책 등이다.

김현록 도 노인복지과장은 “민관합

동점검 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

을 강구하고, 기능보강을 지원하는 등

노인시설에 대해 자속적으로 관리해 나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국내 최초 탄소복합재 수소튜브트레일러 출시

8일 원주에 위치해 있는 일진하이솔루스에서 국내 최초로 상용화 한 탄소복합재 수소튜브트레일러 론칭 행사가 열렸다.

(사진=일진하이솔루스 제공)

도, 환경부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 공모 선정

전국 13곳 중 도내 3곳… 국비 58억 원 확보

전북도가 환경부에서 주관한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사업’에 선정돼 국비 58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이번 공모에 새만금 유역의 정읍 하수처리장(5만8,600m³/일)을 비롯해 남원 하수처리장(5만t/d), 무주 하수처리장(8,500m³/일) 등 총 3개소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 44억 원, 남원 41억 원, 무주 3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등 총 사업비 116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하수처리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사업’은 전북형 그린뉴딜 사업의 하나다.

기존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의 수질과 처리장 내 공정별 각종 수질 및 미생물활성도 등을 실험실에서 1일 1회 분석해 이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정밀계측기와 센서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분석·진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로 최적의 운영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자동제어로 에너지 절감과 안전적인 방류 수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측 및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환경부가 지난해 9월 전국의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한국환경공단이 대상 시설의 적합성 등 기술적 부분을 심사하고, 기획재정부와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전국의 1일 처리용량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장 681개소 중 13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해 안정적인 방류 수질을 확보, 새만금유역 등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효율적인 시설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감도 기대된다”며 “선도사업을 토대로 도내 다른 처리장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하는 등 전북형 그린뉴딜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시 경쟁력 ‘UP’… 새만금청, 가로시설 설치기준 마련

보도·차도·자전거로 등 도로 유형 고려 35가지 기준 담겨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보)은 새만금 사업지역의 가로시설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설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로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지침)과 설치기준(이하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설치기준은 새만금개발청과 새

민관개발공사가 함께 연구용역(2020.

6~2021. 6.)을 진행한 결과물로, 연구

과정에서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새만

금사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설치기준은 새만금개발청과 새

규모를 고려한 총 35가지의 기준이 담겨 있다.

또한,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

도록 기본방향과 필수·권장사항

지양사항 등이 제시됐다.

가로시설은 도시 공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광활한 새만금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가로시설

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도시 공간을

연결하는 데 일관성을 저해하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박종민 사업총괄과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새만금 사업계획 수립에 적용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상속한정승 인공고

망 강성호(1972. 3. 8. 생 2021. 3. 26.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조형섭 사법보좌관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체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건번호: 2021느단579 상속한정승인

사법보좌관 조형섭

▶피상속인: 망 강성호(1972. 3. 8. 생 2021. 3. 26. 사망)

최후주소: 전주시 완산구 중앙1길 2, 202호
(종합산동 271)

▶공고인: 홍은영

▶상속한정승인수리일: 2021. 7. 5.

▶공고기간: 2021. 7. 9. ~ 2021. 9. 8.

▶주소(청구대리인): 김준영

전주시 덕진구 들판1길 9(덕진동 1)
스카이블루빌 101호. 한울법무사무소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